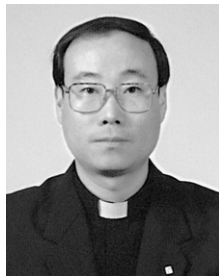


주일의말씀

성 김대건과 VIP



박강수 로무알도 신부
칠곡가톨릭병원장

사막의 땅 어촌이었던 두바이가 물류 항공 관광 인프라를 갖춘 국제중계무역과 중동의 금융 중심지로 환골탈태하고 있고, 반면 국제적인 수준의 개방성을 수용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IT산업은 자칫 스마트폰 시장에서 낙오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가는 물론 지역과 조직 그리고 개인까지 매 순간 도전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변화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여 전략을 짜고, 그 전략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이루어낼 때 조직은 살아남는다.

'변화의 리더십'에는 VIP형 인재가 요구된다. VIP형 인재는 Vision(비전)을 제시하고 Innovation(혁신) 마인드와 Passion(열정)을 가슴에 품는다. 한국천주교계에서 VIP형 인재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대건 신부님은 비전이 명확하고 충실한 믿음으로 열정적인 삶을 사셨다.

Vision - 신부님은 참수 당하기 전에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았으니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한 것은 내 종교와 내 하느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확실한 비전은 없다.

Innovation - 1845년 8월 31일 상해를 출발해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40여 일만에 강경부근 황산포에 도착, 서울로 와서 그 인근, 용인지방까지 교우촌을 방문하였고 성사를 집전하였다. 신부님은 주교님의 지시로 선교사 영입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다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40여 차례 혹독한 심문을 받았고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하였다.

Passion - 김대건 성인은 비록 짧은 삶을 사셨지만 조선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였다. 온갖 고난과 추위와 굶주림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며 (로마5,3) 옥중에서도 교우들에게 끝까지 견디어 내어 구원을 얻을(마태10,22) 것을 격려하였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VIP형 리더십, 충실한 믿음과 열정적인 사랑과 용기 있는 삶을 모든 신자들과 사제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비전을 세우고 자기혁신을 통한 열정적인 삶으로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VIP형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자!!

생명의말씀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루카 10,6 참조

이사 66,10-14ㄷ 갈라 6,14-18 루카10,1-12,17-20.

미사를 잘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교구 사목국

하느님 나라의 축복을 위한 “내적 필수품”...

교황님께서 지난 오스트리아 방문 때에 주일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미사 봉헌은 ‘계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필수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일 미사는 “교회가 매주 거행하는 축제의 날, 감사의 날이며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대해 기뻐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주일 미사 참여 없이 가톨릭 신앙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미사를 잘 봉헌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전례학자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미사를 잘 봉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사 전에**= 미사 중에 봉독 될 성경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며 성체를 모실 준비를 한다. 미사에 입고 갈 옷을 미리 챙기며 단정한 옷차림으로 구원의 축제를 준비한다. 봉헌금도 정성껏 미리 준비하고 최소한 미사 시작 15분전에 성당에 도착한다.

미사 안내 봉사자들은 교우들이 형제자매로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반갑게 맞이한다.

▲ **미사 중에**= 성당 좌석은 제대와 독서대에 가까운 자리에 앉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자세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지 않는가. 미사에는 주객이 따로 없는 만큼 성가를 부를 때도 힘차게 부른다. 집전 사제가 혼자 기도를 바치는 경우에도 그 기도에 마음을 모으고, 자기 자신의 기도를 더하며 하느님께 바치는 공동의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예비신자를 가족 돌보듯 도와주고, 평화의 인사 때는 진심을 다하여 형제자매로의 우정과 배려와 친밀감을 담아 인사를 충분히 나누어야 한다.

▲ **미사 후에**= 파견강복을 받고 파견성가를 부르며 하느님께 한 주간을 봉헌하는 기도를 드린다. 성당의 적당한 자리에서 교우끼리 친교를 나누는 시간은 아주 중요한데 구역, 반이나 신심단체에서 차를 제공하는 것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본당이라는 친밀감과 소외됨이 없는 친교의 장은 우리 교회가 하느님의 집이며 구원의 성사임을 드러내는 표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복한 여름휴가를 위해선 준비할 것이 참 많죠? 하느님 나라의 축복을 위한 “내적필수품” 교황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행복한 주일되세요.

확인 또 확인을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14주일

한국성가자들의수호자 성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순교자대축일 경축이동

입당성가

287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화답송

◎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21 받아주소서

영성체송

너희는 먹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파견성가

283 순교자 찬가

영성의 향기

:: 하느님의 은혜로움

하느님의 은혜로움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교우들에게 실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바오로의 모범을 보여 주는 구절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혹은 “그리고 우리도 끊임 없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에 관하여 하느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등입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하느님께 감사하는 모범을 보인 바오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 대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 늘 기뻐하십시오

바오로는 필립비서 4,4: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그의 서간을 보면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처럼 ‘기쁨’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바오로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라는 권고는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면을 말하는 것인데 바오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기쁜 소식’ (福音)을 살고, 그것을 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공존의 지혜



하늘을 찌를 듯이 커다란 나무에서 살고 있던 벌레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장 벌레가 다른 벌레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우리 벌레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 숫자 정도로는 이 나무의 위용에 가려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이 나무를 먹어 치우면 세상은 이 나무보다 위대한 우리 벌레들을 알아 줄 것입니다.” “대장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다 짜내어 이 나무를 빨리 갉아먹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좋다. 이 나무를 총공격하자. 한쪽은 부지런히 자식을 낳고 나머지는 나무를 공격하여 우리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자!” 신이 난 벌레들은 나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던 다른 나무 벌레들은 그들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이윽고 벌레들이 살고 있던 나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뽕’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벌레들이 먹을 양식도 사라졌습니다. 친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자 벌레들은 모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 옮겨온 글입니다. -

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 대성당 설계공모 안내

• 기간: 6.14(월)~9.13(월)
※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서 등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 모임행사 ★

시편경가연수(Sr.김정선),발성법(박재연) 회비:1만원
• 일시: 7.4(일) 15:00, 장소: 가톨릭음악원(255-4847)

폐제기도회

• 일시: 7.10(토) 20:00, 장소: 삼덕 젊은이성당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례꽃 꽃·예술과정 졸업전시회

• 일시: 7.8(목) 14:00~10(토) 20:00
• 장소: 매일신문사 CU갤러리 1층
• 문의: 526-3413, 5/ 017-507-1772

2010년도 대구대교구 청년 창작 생활서가 경연대회

• 예선심사: 9.30(목)~10.9(토), 발표: 10.10(일)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 성소모임 ★

성 베네딕도 성소모임

• 일시: 9.4(토) 16:00~5(일) 14:00
•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 대상: 고등학생 이상~만31세이하 미혼남성
• 문의: 010-8353-2323

★ 피정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대피정

• 일시: 1차 7.30(금)~8.1(일), 2차 8.6(금)~8(일)
• 대상: 미혼여성(35세미만)1차,중고등부(여중고생)2차
• 문의: 02-865-8174/ 016-570-0939(홍천/2만원)

★ 모집 교육 ★

가톨릭선종장례봉사자교육(청통수련원)

• 천주교전통장례예절/선종봉사자임무(40명)
• 매일 셋째주 토,일(1박2일) 참가비:5만원

• 문의: 대가대평교원 526-3413-5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강사 양성교육 실시

• 일시: 7.19(월)~24(토), 교육비: 20만원
• 문의: 653-7755 (<http://www.dgyouth.net>)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영어연수

• 일정: 7.18(일)~8.28(토) 6주
• 대상: 초4~중3(35명), 장소: 필리핀 바콜로드
• 문의: 656-6655(www.dgyouth.net)
필리핀대학생 해외봉사&영어연수 단체출국모집
• 문의: 593-1273/ 016-804-4410

선교활동 봉사자 구함

• 대상: 성서학교, 신학원교육 수료자
• 나이: 40~60대 여성
• 신청: 한국천주교구두선교단(계산성당 문화관 3층)
781-6100(leepan-seok@catholic-sm.org)

성 바오로 안나의 집

• 대상: 만 65세이상 만80세 이하
신변자립이 가능한 어르신(여성)
• 비용: 월생활비(402,000원) 보증금 5백만원
• 구비서류: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054-382-1634/ 383-5570

보다 더 나은 혼인생활을 위한 - ME주말초대

• 대구279차: 7.23(금) 19:00~25(일) 18:00
•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473-5712
※ ME주말에서는 더 깊은 사랑의 대화방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수도자와 함께하는 해외성지순례

• 일정: 10.13(수)~25(일)
• 순례지: 이집트, 이스라엘, 로마, 아씨시
• 문의: 정다리아 수녀 010-4147-6241
• 주처: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여대생 기숙사 안내

• 대상: 여대생, 대학원생(종교무관)

• 장소: 서울 성북구 정릉 (국민대 건너편)
• 문의: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 수녀회
[http://www.rcm1892.net\(02-911-7580\)](http://www.rcm1892.net(02-911-7580))

36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 초·중·고: 7.25(일)~8.15(일)
• 대학생·일반: 6.27(일)~8.8(일)
• 주관: 마 신부님
• 문의: 그린피스 E&T 02-569-1331
※ 단체 및 참가관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화교실개강(중급)

• 개강: 7.4(일), 장소: 계산주교좌성당
• 일시: 매주(일)14:00~16:00(개원,회비(만원)교재비별도)
• 문의: 농아선교회 254-3423/ 011-809-0447

성음악 연수(한국세실리아성음악협회)

• 일시: 7.26(월) 12:00~29(목) 16:00
• 장소: 가톨릭대성심교정 학생수련원
• 내용: 지휘,발성,오르간,그레고리오성가등
• 강사: 최호영신부 외17명, 연수비: 20만원
• 문의: 010-4815-4234(cecilkorea.org)

★ 안 내 ★

가톨릭문화관 내 사무실 임대(1층 8평)

• 문의: 011-9579-7382

교구 법원 공시(253-9550)

※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수향(크리스티나)

군중후원회 미사 변경 및 신설안내

• 군중후원회 성모당미사 7월부터 장소 및
일정변경: 계산성당 매일 낮새 월요일 11:00
• 경주지역 7월부터 군중후원회 미사신설: 성동프
리텔(구:근화여교) 413호 매일 첫 월요일 11:00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밀알후원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7월 5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지속적인성체초배회 미사	7월 5일(월) 오후10시	한티순례자의집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5일(월) 오전11시	신평성당	한국SOS어린이마을 후원회 월례미사	7월 7일(수) 오전11시30분	한국SOS어린이마을 2층강당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5일(월) 오전11시	성동프리텔413호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7월 8일(목) 오후2시	성모당

연세소아발달연구소

(아동, 청소년, 성인, 가족치료센터)

복합부 치료비 지급(바우처 제도)
매월 12명 128,000~220,000원 차등 지원

*심리,놀이, 미술,음악,언어,학습치료 ADH/동
소장 조옥형(하네스) / 652-9000

도우미 익스프레스

포장이사, 사무실이사, 일반이사

대표 양 말 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치질 · 치루 · 항문병 수술

선 일 외 과 의 원

원장, 전문의:배선익(사도요한)

TEL: 745-6633~4

지하철 2호선 범여역
범여네거리, 수성못방향 → 300m

이연재 맥 의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원장: 이연재 (에릭)

홍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 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 방향 200m

달성피부과

BF 아토피센터 1F 레이저,탈모
2F 여드름,흉터 3F 비만,미용수술

손 제 경 다미야노
김 인 주 레지나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el. 566-4333, 559-7575

궁정에너지 가 넘치는

상인 행복을 심는 치과병원

상인 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

롯데리아 건물 5층

T.633-7504/634-7504

원장: 강원일(안드레아),권광,구선주

결혼상담

27년 전통의 성가정을위한 만남의 장

성심결혼

558-3003, 644-4007

비산네거리(서부 초등학교 옆)

류영실(마리아) · 함(논나)

라식,맥내장수술전문

김기산안과
Dr. Kim Ki San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임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257-8875 www.kisanlasik.co.kr